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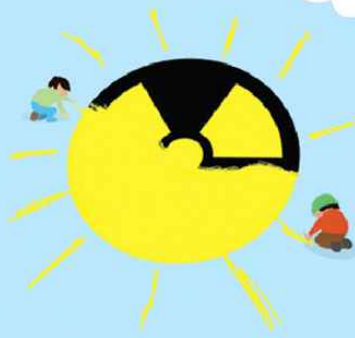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사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옴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네페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친박도 무너졌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질서’, ‘명예’ 이렇게 전제를 달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 친박 핵심 중진들이 말입니다. 역시 친박에게는 의리보다는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친박의 액션이 ‘탄핵 가결’로 뿔뿔 뭉친 비박과 야당으로 하여금 이번주 금요일 탄핵안 통과를 못하게끔 정치적 꼼수를 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친박 에겐 그 꼼수를 짜낼 머리와, 그 꼼수를 실현할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들도 박근혜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박근혜, 뭐라 응답해야 할까요? 저는 목살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도 옵션을 제기하겠지요. 자신의 안전 보장 말입니다. 즉 사법처리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지요. 그러면 친박은 박근혜의 입장을 대변해 물밑에서 협상을 걸 겁니다. 비박과 야당을 상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비박과 야당은 목살하면 됩니다. 단언컨대 시간은 박근혜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2월 2일 탄핵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12월 2일이 될 때까지 청와대의 요구사항은 그 수위가 갈수록 약해질 겁니다. 탄핵안 가결을 두 눈 뜨고 보고 싶지 않다면 끝내 조건 없는 하야 발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여 저쪽과 거래하자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는 이 촛불혁명 국면에 있어 박근혜 다음으로 처단 대상으로 꼽힐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권만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요구합니다. 기성 정치가 간판만 바꿔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박근혜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새 체제에 무임승차하려는 자들, 꿈 깨고 저 200만 평화시위를 이뤄내는 경이적인 국민의식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협잡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 있어 이 고매한 국민들은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조건 없는 즉각 하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박과 야당은 애초의 기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촛불혁명의 민의를 수렴하기 바랍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9일(화) 1부 | 청와대 내부 "이제 더 버티기 힘들어"

[오프닝] 박근혜 중대 결단 임박...시간은 촛불시민 편이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여권 '명예 퇴진' 출구 모색...청와대 내부 "더 버틸 수 없어"

-박근혜 '명예로운 퇴진' 한디해도 면죄부 보장은 헛집 않아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 부처마다 손놓았다

-MB 고산지대서 비아그라 안 써... "대통령 진료는 관저에서"

- '이것이 팩트'라던 청와대 세월호 거짓말, 감사원도 확인

[뉴스듣기능력평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관련 퀴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트럼프, 오바마가 일군 쿠바와의 관계 개선 였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상황 1면 털어 집중 보도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한국 경제 진짜 경고등, 40대 가구 첫 소득 감소

- [어제 못한 월요 경제학] 쿠바 경제가 2016 한국 경제에게

[공화국 논평] '만나 부끄럽다'던 김무성에 대한 중대조치

친박도 버린 박근혜

朝鮮日報 “朴 퇴진, 野도 무조건 수용하라”

어제 저녁 서청원·최경환 등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들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조기 퇴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선 일보를 살펴보자.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개헌요구를 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폈다. “첫째, 박근혜가 물러날 결심을 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가 어떤 정치적 복선도 조건도 없이 다 내려놓아야 한다. 셋째, 야권이 어깃장 놓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중앙일보 ‘질서 있는 퇴진’에 흔들리는 청와대

이어서 중앙일보 기사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질서 있는 퇴진론을 수용한다면 야당도 탄핵안 추진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국 전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진은 없다며 완고하던 청와대도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 청와대 내부, “더 버틸 수 없을 듯”

마지막 ‘호위무사’였던 친박 중진들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자 대통령 박근혜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는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명예로운 퇴진? “사면 쉽지 않아”

명예로운 퇴진이 현실화하려면 대통령 박근혜에게 어느 수준까지 면죄부를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시스템은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난점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특검까지 예고된 만큼 박근혜의 사면을 미리 보장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어디서 받아 줄진 몰라도 망명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겨레 친박의 ‘뒷북’, 비박은 ‘탄핵’ 고수

새누리당 비박계는 친박계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조기 퇴진’을 건의한 것에 대해 “뒷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탄핵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이다. 비박을 대표할 위치가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태경 의원은 “내년 4월말 명예퇴진을 국민들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탄핵을 통해 즉각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붕괴된 정부

서울신문 공무원 “국정 공백 아닌 마비 상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 박근혜가 업무보고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니까 이러한 게 아니겠나.

서울신문 MB도 비아그라는 안 샀다

청와대는 고산지대 순방에 대비해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대통령이 고산지대를 순방했지만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의약품 구매 비용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東亞日報 “대통령 진료는 대부분 관저에서 해”

대통령 박근혜의 비선 진료 의혹과 각종 주사제 논란의 중심에는 청와대 의무실이 있다. 전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들은 “대통령은 주로 숙소인 관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무실에서는 간단한 수술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과검근무를 했던 한 대형병원 교수는 “청와대 의무실 시설이면 대형 수술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朴, 최태민 청탁 받고 기업 민원”

박정희 전 대통령을 10년 가까이 보좌했던 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정렴 전 비서실장은 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 당시 박근혜가 기업체 두 곳의 용자 해결을 부탁했다고 한다. 두 업체는 최태민에게 청탁을 벌인 곳이었다. 당시 20대였던 큰 영애, 박근혜가 비서실장에게 대출 청탁을 한 것이다. 최태민 부녀에게 일생 내내 농락당한 박근혜다. 이런 한심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니.

한겨레 박근혜, 아침에 세월호 보고 받았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의 계속되는 오보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가 피해 상황을 오후 2시50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안보실은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 11시경에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인사가 망사였던 정권

朝鮮日報 최재경 민정, 사퇴 의사 강한 듯

어제 대통령 박근혜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일주일 만에 수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의 만류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며 사표는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 이럴 거면 유명하 변호인 겸 민정수석은 어떤가?

노컷뉴스 안봉근, 인사 맘대로 안 되면 보복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찰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 개입에 실패하면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경찰청장으로 가는 자리인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에 특정 인사를 앉히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반대하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 전원에게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겨레 서울대총장, 청탁받고 ‘교수 보직인사’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교수 인사 청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성득 전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아내인 오정미 서울대 약학과 교수를 특정 보직에 앉혀달라고 성낙인 총장에게 편지로 부탁했다. 성낙인 총장은 지난 7월 오정미 교수를 연구부처장에 임명했다. 함성득 전 교수는 당시 고위관료와 친분을 내세워 사업 계약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함성득 배후에 뭐가 있어서 서울대 총장이 휘둘렀을까?

경향신문 박근혜 싱크탱크 운영했던 김병준

대통령 박근혜는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내세웠다. 하지만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박근혜의 싱크탱크였던 ‘포럼 오래’의 정책연구원장을 맡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는 2008년 ‘포럼 오래’가 만들어진 후 주요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바 있다. 2008년이면 노무현 정부 직후인데 이때부터 줄었다. 쓸개 빠진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죽은 권력

국민일보 태어나자마자 ‘식물 교과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 내용을 검정 교과서보다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고교 한국사와 중학 역사 국정 교과서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누락됐다. 검정 교과서 대다수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MBC 구성원들, 사측에 반발 격화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맡았던 박상권 기자와 이정민 아나운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영서 주말뉴스부장이 보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MBC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100만 명이 운집한 3차 촛불 집회 역시 타 방송사에 비해 적은 분량으로 보도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구성원들이 실명으로 내부비판에 나선 데 이어 뉴스의 얼굴인 앵커들도 마이크를 내려놓을 정도로 내부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MBC.

오늘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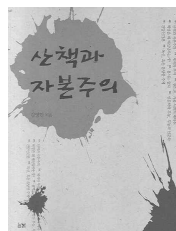
한겨레 “개헌론자들에게 고함”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헌론자들에게 고함”입니다.

“이 틈을 타서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개헌하자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제약적인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광장에서 분출된 요구도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의 원인 분석도 틀렸다. 이번 문제가 헌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

오히려 헌법을 어긴 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헌법 자체를 바꾸자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개헌론자들이 그 주장을 쉽게 거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오·늘·을·읽·는·책

산책과 자본주의 김용민 저

당신이 만약 자본주의가 휘두르는 파시즘적 가속도에 깊게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책'을 시작하라고, '산책'의 탈자본주의적 창의성은 무엇보다도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자본제적 교환의 바깥으로 외출하도록 돕는 데 있으므로, 진정한 삶은 '등가교환의 외부에 기대고 있으므로' 동무와 함께 산책을 시작하라고 권한다.

먼저, 개헌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쪽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더 보장되어야 할까? 우선,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3권이 최소한 국제기구에서 정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제헌헌법에 있다가 사라진, 근로자가 기업의 이익에 균점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도 부활시켜야 한다. 복지국가 정신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형성과 작용, 소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장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 관련 조직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부여해야 한다.

적어도 최고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마련해서 권력기관의 소멸에도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일컬어지는 사법작용에도 국민 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 대상 결정, 기소 여부 판단, 재판제도를 국민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절차에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배심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개헌은 지지한다. 이정렬 전 판사의 칼럼 내용은 배제된 채 권력지도만 바꾸는 개헌 요구는 국민에게 냉소만 살 것이다. 그대들에게 너무 과분한 똑똑한 국민이라니까.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선언문

재벌정부 노동개악은 노동자와 청년에게 재앙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왜곡이고 미래세대에게 재앙이다.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는 전 민족에게 재앙이다.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재벌천국 서민지옥이다.
 한일군사합정은 제2의 을사늑약이고, 한일위안부합의는 굴욕적 야합이다.
 모두 무효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은 모든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단독범이 아니다.
 공범, 공범, 교사 세력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예외 없이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 똑같다.
 불법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과 권력의 호위무사 정치감찰은 청산해야 할 부역자다.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해 온 조중동 수구언론은 공범이고 교사범이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 해온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단 하나의 요구로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에 돌입한다.
 국정을 중단하고 마비시킨 불법권력에 맞선 정당하고 의로운 저항행동이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민은 아스팔트 농사로, 상인은 철시로, 학생은 휴업으로 함께한다.
 모든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하루 일손을 놓고 함께 할 것이다.
 단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차 총파업과 더 큰 시민불복종 행동으로 박근혜 퇴진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우리는 200만 촛불항쟁과 총파업, 그리고 시민불복종으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